

(가) 안개 같고 구름 같은 내 마음 하늘에 노닐어  
 옥 새장에 금 자물쇠도 나를 잡아 두지 못하네.  
 나 평소 **원결\***을 본받아  
 한계로 떠나 허랑한 서생이라 불리고 싶었네.  
**한계사\***의 스님을 우연히 여기서 만나  
 즐거워 눈썹 펴고 함께 웃누나.  
 남은 술 한 잔이야 참선에 방해될까  
 그 말씀씨 시원한 바람 같아 더욱 좋아라.  
 함께 있느라 해 지는 줄 몰랐더니  
 십 리 길 푸른 안개 저녁 빛을 재촉하네.  
 다시는 한계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리  
 스님의 눈빛이 한계보다 더 푸르니.

- 이규보, 「한계사의 노스님에게」

\*원결: 중국 당나라의 시인.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갔다고 함.

\*한계사: 강원도 설악산의 한계령 입구에 있던 사찰.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음.

(나) 오경보가 자신이 올린 장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양 가게 되었을 때, 나는 설성에 있고 이윤지는 단양에 있었으므로 **송별을 하지 못했다**. 경보가 편지로 **적소\***의 일을 알려 왔는데, 그 말이 몹시 처량하고 괴로웠다. 나에게 두보의 **전·후 「출새」\*** 시를 서사(書寫)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미처 써서 부치지 못했다. 그런 중에 윤지가 쓴 이별시를 보게 됐는데 마치 경보를 사별하기라도 한 듯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워** 이 때문에 그만 마음이 놀라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글씨 또한 써서 부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홀연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는데**, 얼마 있다 경보가 북쪽 변방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경보의 넋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여 초혼사를 지으려 했지만 슬퍼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입춘인 입자일(壬子日), 나는 꿈에 윤지와 함께 어느 방에 이르렀는데, 텅 비어 있는 게 특이했다. 윤지는 내게 오동꽃을 먹어 보라고 하였다. 꽃잎은 희고 꽃술은 붉어 흡사 목련 같은데 향기가 입안에 가득해 정신이 송연하였다. 홀연 경보가 곁에 보였는데 **한창 집을 짓고 있었다**. 동에는 고관(高館), 서에는 곡방(曲房)을 두었으며, 향기 나는 꽃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나무들이 서로 어리비쳤으니, 흡사 경보의 산천재나 옥경루\* 같았다. 경보는 말하기를, “동서 양실(兩室) 사이에 모퉁이를 따라 담장을 세워, 깊고 그윽한 속에 꽃과 나무들이 은은히 비치게 하면 집이 빛날 거외다.” 라고 하였다. 내가, “그대는 형제가 없어 항상 외롭게 지내니 관사를 뒤 그대의 친척과 친구들을 거쳐하게 하되 동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 가운데를 막지 말구려.” 라고 했더니, 윤지는 내 말에 찬성했고, 경보는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깨어나 생각해 보니, 담장을 세운다는 건 그 뜻이 상서롭지 못했다. 봉우 간의 말에 유명(幽明)의 구분\*이 없고, 당실(堂室) 사이를 가로막지 않고 동서로 환히 통하게 하여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듯 하게 한다는 것은 혼백이 오고 가 어떤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몽조(夢兆)가 아닌가 싶다. 하물며 양기(陽氣)는 입춘 날 성대하게 펼쳐 일어나거늘,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하여 남쪽으로 온 것은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 이인상, 「소화사」

\*적소: 귀양살이하는 곳.

\*출새: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두보가 쓴 시로 변방을 지키는 군졸의 심정을 대변해 읊은 작품임.

\*산천재나 옥경루: 서울 북촌에 있던 오경보의 서재와 누각 이름.

\*유명의 구분: 저승과 이승의 구분.

\*현몽: 꿈에 나타남.

(다) 내가 소학교 때 **원죽\***을 가게 되면 여러 아이들은 과자, 과실, 사이다 등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견대에 뿌듯하게 넣어서 어깨에 둘러메고 모여들었지만, 나는 항상 그렇지가 못했다. 견대조차 만들지 못하고 찰밥을 책보에 싸서 어깨에 둘러메고 따라가야 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숯불을 피워 가며 찰밥을 지어 싸 주시고 과자나 사과 하나 못 사 주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다른 여축\*은 못 해도, 내 원죽 때를 생각하고 고사 쌀에서 찰쌀을 떠 두시는 것은 잊지 아니하셨다. 나는 이 어머니의 애뜻한 심정을 아는 까닭에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다보지도 아니했고, 오직 어머니의 정성 어린 찰밥이 소중했었다. ㉠이것을 메고 문을 나설 때, 장래에 대한 자부와 남다른 야망에 부풀어 새벽하늘을 우러러보며 씩씩하게 걸었다. 말하자면 이 어머니의 애정의 선물이 어린 나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소풍 혹은 등산을 하려면 으레 찰밥을 마련하는 것이 한 전례가 되고 습성이 된 셈이다.

오늘도 친구들과 들놀이를 약속한 까닭에 예와 같이 ㉡이 찰밥을 싸서 손에 들고 나선 것이다. 밥을 들고 퇴를 내려서며 문득 부엌문 쪽을 둘러봤다.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 슬픈 일이다.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다**.

어머니는 새벽녘에 손수 숯불을 불어가며 찰밥을 싸 주고 기대하며 기다리던 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던가? 그는 매일매일 그래도 당신 아들만이 무엇인가 남다른 출세를 하리라고 믿고 그의 구차한 여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살아왔건만 그의 아들은 좀처럼 출세하지 않았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어머니는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그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먼 길을 떠나던 그 순간에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웃음을 보이려 했다. “나는 너의 성공하는 것을 못 보고 가지만 너는 이담에 꼭 크게 성공해야 한다.” 그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모른다.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끝끝내 아들의 성공을 믿으려던 그. 그 아들도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감격에 어린 눈으로 대답했었다. 사실 그는 야망에 차 있던 청년이기도 했다. 환상에 사로잡히어 멍하니 섰던 나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본다. 아침 여섯 시 반. 일곱 시 사십 분까지 불광동 종점으로 모이기로 된 약속이다. 여명의 하늘은 흰히 밝아 오고 서글서글한 바람이 옷깃으로 기어든다. 나는 문을 나서며 먼 하늘을 한 번 바라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백수(白首) 오십에 성취한 바 없이 열한 살 때 메고 가던 그 밥을 손에 들고 소년 시대의 기분으로 문을 나서는 사나이.

어머니! 야망에 찻던 어머니의 아들은 이제 찰밥을 안고 흰 터럭을 바람에 날리며, 손등으로 굵은 눈물을 닦습니다.

- 윤오영, 「찰밥」

\*원죽: 소풍을 이르는 말.

\*여축: 쓰고 남은 물건을 모아 둬. 또는 그 물건.

# 1. 25001-02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이 지닌 품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와 (다) 모두, 인물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자신의 겪은 일을 제시하여 그 일에서 비롯된 의식과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나'가 한계로 떠난 이유 중 하나이다.
- ②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 ③ '나'가 한계를 그리워하게 된 데에는 '원결'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했다.
- ④ '나'는 시간 가는 것을 모를 만큼 '한계사의 스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있다.
- ⑤ '한계사의 스님'과 만나면서 한계에 대한 '나'의 심리적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오경보를 애도하는 글이다. 오경보는 글쓴이의 지기로 영조 27년에 장원 급제해 정언에 임명된 후 상소를 올려 신임사화 때 죄지은 자들을 벌하라는 직언을 했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함경도 삼수로 귀양을 갔고 그곳에서 병사했다. 그가 장원 급제했을 때 글쓴이는 충고하는 편지를 보내, 임금에게 직언하는 충직한 신하가 될 것을 당부했는데 글쓴이는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 죽었다고 여겨 크게 상심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오경보의 죽음 전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과 슬픔의 감정을 나타낸다.

- ① '자신이 올린 상소 때문에 북쪽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는 것에서, 오경보가 신임사화와 관련해 임금에게 직언했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함경도 삼수로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오경보가 떠날 때 '송별을 하지 못'한 일과 '전·후 [출새] 시를 서사해 달라'는 부탁을 그의 생전에 들어주지 못한 일을 언급한 것에서, 그 일 때문에 오경보에게 미안해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③ 오경보가 '적소의 일을 알'린 '그 말'과 '윤지가 쓴 이별시'의 '시어'가 '처량하고 괴로'웠다고 한 것에서, 오경보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에 대해 슬퍼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④ '꿈속에서 경보를 만나 서로 손을 잡고 통곡했'던 것에서, 오경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그가 자신의

충고를 따르다 죽었다고 여겨 자책감을 느끼는 글쓴이의 심정을 엿볼 수 있군.

- ⑤ '경보의 녀이 객지에서 떠돌까 염려하'였다고 한 것에서, 오경보가 유배지에서 병사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알 수 있군.

#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담긴 '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과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좌절되었다.
- ② ㉠은 '나'에게 자부심을, ㉡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③ ㉠에 얽힌 과거의 추억과 ㉡이 드러내는 현재의 삶을 병치하여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드러낸다.
- ④ ㉡은 '나'에게 ㉠을 떠올리게 하여 어머니에게 받았던 애정과 신뢰를 기억하게 한다.
- ⑤ ㉡을 마련하는 일이 특정 상황에서의 습성이 된 데에는 ㉠에서 경험한 '나'의 정서적 결핍이 작용했다.

# 5.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학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경험 중에는 인물의 특정한 정서나 심리에서 촉발되는 것들이 많다. 문학의 소재로서 꿈이나 환상도 그러한 비현실적 경험에 해당한다. 꿈이나 환상은 인물이 현실과는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을 만나게도 한다. 아울러 비현실적 경험을 통해 인물은 현실에서 느끼는 근심을 해소하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도 한다.

- ① (나)의 '나'가 꿈에서 이윤지와 함께 '텅 비어 있는 게 특이'한 '어느 방'에 이르러 '한창 집을 짓고 있'는 오경보를 보게 되는 것에서, '나'가 꿈을 통해 현실과 다른 장소를 경험하고 현실에 부재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의 '나'가 꿈에서 오경보를 만난 후 '경보의 혼이 나에게 현몽하여 남쪽으로 온 것은 타향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나'가 오경보의 죽음에서 비롯한 근심을 꿈을 통해 덜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다)의 '나'가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새벽에 숯불을 피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던 것에서, '나'가 환상을 통해 어머니가 살아 계셨던 시간으로 돌아가 현실에 부재하는 어머니를 잠시나마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나'가 '손에 밥은 들려 있건만 그 어머니가 없'는 현실에 대해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에게 떠오른 어머니의 환상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서 촉발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⑤ (다)의 '나'가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랐던 성공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나'가 환상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였음을 알 수 있군.

(가) 슬프다 기민(飢民)들이 진휼(賑恤) 기별 들었는가  
 당초에 피흔 곡식\* 정비(精備)하여 받았더니  
 진휼청 모든 쥐가 각 창(倉)의 구멍을 뚫고  
 주야로 나들면서 씹씹이 까먹었네  
**이번의 타낸 결량(乞糧) 공각(空殼)으로 의포하에\***  
 적조(糶糶)\* 맡은 저 두승(斗升)\*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신 철목으로 삼겼거늘  
 무단이 환면(換面)\*하고 빙공영사(憑公營私)\* 하나스다  
 엇그제 관홍량(寬洪量)\*이 간탐(奸貪)코 협애(挾隘)하다  
 변세(變世)는 변세(變世)로다 사람이 거북 되어  
 진창의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본성(本性)이 쥐의 모습[鼠狀]이라** 마침내 어이 되어  
 창중(倉中) 진곡미를 다 주어 물어 가다  
 여뀌\* 잎을 굴을 삼고 모야(暮夜)의 장치(藏置)\*하니  
 ㉡석서가(碩鼠歌) 일어난들 교혈여부(狡穴餘腐)\* 뉘 있으리  
 실갓 쓴 소령감(小令監)은 진왕(秦王)의 성(姓)을 얻어\*  
 ㉢단좌소 다방부리 지휘 중의 넣어 두고  
 주묵(朱墨)을 천농(擅弄)하며\* 잔민(殘民)을 추박(椎剝)하니  
 저 아포(餓殍) 월시(越視)하고\* 사화재(私貨財) 도모한다  
 진정사(賑政事)막게 하소 **무실존명(無實存名)\*** 가이없다  
**진감색(賑監色)의 진진 창\***을 고비고비 다 채우니  
 기민아 네 죽거라 사사(事事)로 살세(殺歲)로다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랄 것 없어도야  
 사월 남풍의 대맥황(大麥黃) 믿었더니  
 황모(黃耗)\*는 ㉣몹쓸 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맥흉(麥凶)을 또 만나다  
 ㉤수익심(水益深) 화익열(火益熱)을 과연이다 성훈(聖訓)이여  
 인명이 철석(鐵石)인들 이려고 보전하랴  
 문노라 관인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세미환상(稅米還上)\*** 각항(各項)받자 구미수(舊未收)\*는 무슨 일고  
 ㉦아무리 식년(式年)인들 신호적(新戶籍) 무슨 일고  
 가소로다 즉금 수단(脩單) 합몰절호(合沒絕戶)\* 방시(方時)로다  
 도탄의 빠진 백성 어느 겨를에 눈을 뜰꼬  
 실 같은 이 목숨이 질김도 질길 씨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더욱 **싫다**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불이 난다  
**망극하다 통곡이여** 도처의 참혹하다  
 이 몸이 황황(遑遑)하야 심불능정정(心不能定情)\*하니  
**이 살세 살아나서 이 낙세(樂歲) 불동말동**

- 작자 미상, 「임계탄」

\*피흔 곡식: 곱게 찢은 곡식.  
 \*이번의 타낸 ~ 의포하에: 이번에 탄 환곡은 빈 껍질을 나누어 주고.  
 \*적조: 곡식의 매매, 출납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환곡을 뜻함.  
 \*두승: 말과 되를 아울러 이르는 말.  
 \*환면: 사람을 바꿈.  
 \*빙공영사: 공적인 일임을 빙자해서 사리를 도모함.  
 \*관홍량: 넓고 큰 도량.  
 \*여뀌: 물가에 자라는 풀의 일종.  
 \*장치: 간직하여 넣어 둠.  
 \*교혈여부: 간교한 짐승의 굴속에 남은 곡식.  
 \*실갓 쓴 ~ 성을 얻어: 부정한 하급 관리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주묵을 천농하며: 문서를 멋대로 조작하여 농간하며.  
 \*저 아포 월시하고: 굶어 죽은 시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실존명: 실제 없는 자의 이름을 장부상에 올리는 것.  
 \*진감색의 진진 창: 진휼을 맡은 관리의 길고 긴 창자.  
 \*황모: 보리나 밀이 시들어 못쓰게 되는 병.  
 \*세미환상: 환곡의 이자로 내는 쌀.  
 \*구미수: 전에 받아들이지 못해 누적된 채납.  
 \*합몰절호: 모조리 죽어 자손이 끊어진 상황. 또는 그런 집안.  
 \*심불능정정: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함.

(나) 백성의 부역 가운데 병역이 가장 고달프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 주니, 병사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남쪽 고을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백성을 징병할 때가 되자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 병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내보였다. 내가 **불쌍히 여겨 물었다.**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지금 너는 군적(軍籍)에 편입되는 것을 면하려고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으니, 어버이에게 불효이고 인지상정다면 행동이 아니겠느냐?”

남자가 한참 동안 오열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 중에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일이 없지만, 제 몸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큰 불효가 없지만, 부모가 주신 몸을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불행에서 말미암은 일입니다.

지금 한 지방의 절도사가 된 자들은 대부분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병사를 아끼고 기르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권력자를 잘 섬기는 것만 능사로 압니다. 이 때문에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며, 엄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행해 이리 승냥이처럼 사나운 짓을 자행합니다. 병사들은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고, 목매어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가 또 몇이나 되는지도 못 헤아립니다. 도망한 사람이 나오면 체포하는 자가 새벽부터 출발하고 결원을 보충하라는 명령이 화급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징병하고 일족을 징병하고 이웃을 징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일족, 이웃인들 어찌 병역이 없겠습니까? 부모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면 아들 하나를 징병하고, 아들 일곱이 있으면 아들 일곱을 징병합니다. 친척 한 집이 있으면 한 집에서 징병하고, 열 집이 있으면 열 집에서 징병합니다. 이웃이 있으면 서쪽 집에서 징병하고 동쪽 집에서 징병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처자가 흩어지고 일족이 생업을 잃으며 이웃이 서로 보전하지 못하여,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이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 있고 형제가 넷입니다. 첫째 형은 병사가 된 지 **사 년 만에**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도망했고, 둘째 형은 병사가 된 지 **삼 년 만에** 고달픔을 견디지 못해 군대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습니다. 셋째 형은 병사가 된 지 **이 년 만에** 곤장을 맞고 집에서 죽은 지 **이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 제가 또 병사가 된다면 첫째 형처럼 도망할지, 둘째 형처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귀양 가는 결과는 면할 수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봉양하지 못하니,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시 팔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작은 불효는 저지를 수 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제가 병사가 된다면 이 손이 있다 한들 **왕상처럼 열음을 깨고** 잉어를 낚아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팔이 있어 보았자 **자로처럼 쌀을 짊어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병사 노릇 하다가 죽거나 귀양 가는 일을 면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효도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손이 온전하니 땀나무를 지고 맛있는 음식을 올려 어머니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봉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병사 노릇 하다가 죽거나 귀양 가서 부모처자가 흠어지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아, 병사 노릇 하는 고달픔이 제 몸을 제가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말한다.

“아,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여, 손가락을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라도 멀다 않고 달려가는 법이다. 지금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백성이 차라리 제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병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 병사의 고달픔을 알 만하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든 백성이 윗사람을 어버이처럼 가깝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의 말을 서술하여 병사 노릇의 고달픔을 드러내 정치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 박전, 「절비자설」

## 6. 25001-022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인간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우월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는 글쓴이가 전해 들은 정보의 진위를 근거로 대상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과거 경험을 근거로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7.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임계탄」은 임자년과 계축년에 연이어 발생한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장흥 지역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으로, 작가는 중국의 고사와 당대 사회 제도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이 작품에서 작가가 활용한 중국의 고사와 당대의 사회 제도이다.

- 공수자: 손재주가 뛰어난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노나라의 인물로, 톱, 대패 등을 발명했으며 그가 만든 자[尺]는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한다.
- 석서가: 큰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쥐를 피해 떠나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노래로, 『시경』 「위풍」에 수록되어 있다. 세금의 무거움을 풍자한 노래로 평가받는다.
- 단좌소: ‘단좌소’는 ‘단지 앉아서 세월만 보냄’이란 뜻으로, 후한(後漢) 때 성진이란 사람이 남양 태수(南陽太守)로 부임한 후, 아랫사람에게 정사를 전적으로 맡겨 놓고 한가로이 풍월을 일삼으며 세월을 보낸 것을 풍자하는 말이다.
- 수익심 화익열: 『맹자』 「양혜왕편」에 수록된 이야기로,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연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맹자는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환영하는 것은 흉수나 화재 같은 포악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 만약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물이 더 깊고 불이 더 뜨겁다면 백성들은 그 군대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식년: 자(子, 쥐)·묘(卯, 토끼)·오(午, 말)·유(酉, 닭)의 간지가 드는 해로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 조선에서는 이해에 세금을 거두는 기본 자료가 되는 호적을 다시 정리하였는데, 세금 부담을 피해 도망을 간 사람이 호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고 한다.

- ① ㉠: 곡식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임의대로 곡식의 양을 조절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무거운 세금과 관리들의 횡포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 마을을 떠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장흥 부사가 자신의 본분인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하고, 그 아랫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④ ㉣: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분노가 쌓여 결국 나라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행대로 호적을 정리하여 세금을 내는 백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불효’라고 생각한다.
- ②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나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③ ‘나’는 손가락이 남들과 다른 자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행위라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④ ‘어떤 남자’는 한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징병하는 것은 일족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⑤ ‘어떤 남자’는 팔을 부러뜨리는 행위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불효라는 점에서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9.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이 살세 살아나서’, ‘이 낙세 불동말동’을 보면 대비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사 년 만에’, ‘삼 년 만에’, ‘이 년 만에’, ‘며칠밖에’를 보면 시간의 간격을 좁혀 가며 대상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의 ‘왕상처럼 얼음을 깨고’, ‘자로처럼 쌀을 깊어지고’를 보면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슬프다 기민들아’, ‘더욱 싫다’, ‘망극하다 통곡이여’와 (나)의 ‘불쌍히 여겨 물었다’를 보면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여 대상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사람이 거북 되어’,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와 (나)의 ‘이리 승냥이처럼 사나운 짓’을 보면 자연물에 비유하며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백성’이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는 ‘어떤 남자’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 ② ㉠은 ‘백성’의 욕망을 드러나게 하고, ㉡는 ‘어떤 남자’의 소망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 ③ ㉠은 ‘백성’이 겪는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는 ‘어떤 남자’가 겪을 어려움을 해소하게 한다.
- ④ ㉠은 ‘백성’이 미래를 예측하는 원인이 되고, ㉡는 ‘어떤 남자’가 과거를 후회하는 원인이 된다.
- ⑤ ㉠은 ‘백성’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는 ‘어떤 남자’가 시기하는 마음을 지니게 한다.

11.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조선 시대에는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치면 연좌제와 감시의 책임을 물어 친척이나 이웃에게 그 군역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는 군역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춘궁기(春窮期)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실시되었던 환곡(還穀) 제도는 빌려주는 곡식에 쌀겨나 모래, 빈 껍질 등을 섞어 주는 분석(分石)과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곡식을 횡령하는 번작(反作), 빌려준 곡식에 대한 이자를 제멋대로 받는 장리(長利)가 횡행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도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군역과 환곡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대부분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그럼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군역과 환곡 제도의 폐해를 말해 볼까요?

- ① 빌려주는 곡식에 쌀겨나 모래, 빈 껍질 등을 섞어 주는 ‘분석’이 횡행했다는 점은 (가)에서 ‘이번의 타낸 결량’이 ‘공각으로 의포’했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번작’이 부패한 관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은 (가)에서 끝없는 ‘무실존명’으로 ‘진감색의 진진 창’을 다 채웠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제멋대로 받는 ‘장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컸다는 점은 (가)에서 ‘세미환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수’가 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관리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점은 (나)에서 ‘지방의 절도사가 된자들’이 ‘병사를 아끼고 기르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권력자를 잘 섬기는 것만 농사’로 안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연좌제와 감시의 책임을 물어 군역의 의무를 대신 떠맡게 한 제도가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했다는 점은 (나)에서 병사들이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곤장을 맞고 죽’거나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가 또 몇이나 되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새장에 한번 갇히자 돌아갈 길 아득하고

곤륜산\*은 어디인가 바람이 높아라  
 청전\*에 날 저물어 창공은 끊어지고  
 구령\*에 달 밝은데 꿈길만 고달프다  
 여원 그림자 짝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저녁 까마귀 떼는 스스로 신나 온 숲이 떠들썩  
 깃털 긴 날개는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니  
 슬픈 울음 해마다 옛 언덕을 그린다

- 이매창, 「새장 속의 학」

\*곤륜산, 청전, 구령: 신선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곳.

(나)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하건마는  
 그러나 죽은 제갈도 산 중달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언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쥐떼 개떼 도적들을 잠시나마 저어할쏘나  
 비선(飛船)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칠종칠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무나  
 행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라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에 요순 군민(君民) 되어 있어  
 일월 광화(光華)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서 노래하고  
 가을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성대에 파도 없는 바다를 다시 보려 하노라

- 박인로, 「선상탄」

\*칠종칠금(七縱七擒): 촉나라의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뜻함.

(다) 광해군 시절 설생이란 사람이 한양의 청파에 살았다. 그는 문장이 풍부하고 기개와 절개를 숭상했다. 과거를 준비했으나 운수가 좋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다. 일찍이 추탄 오윤겸과 매우 친했다.

[A] 계축년에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설생은 개연히 오윤겸에게 말했다.  
 “윤리와 기강이 사라졌으니 벼슬은 해서 뭐하겠나? 나와 함께 유람이나 떠나지 않겠나?”  
 오윤겸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에 멀리 떠날 수 없다며 사양했다.

한 달 뒤 설생의 집에 가 보니 설생은 이미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인조반정 이후 갑술년에 오윤겸은 관동 관찰사가 되어 지역을 순시하다가 영랑호에 배를 띄웠는데 홀연 안개와 파도, 아득한 구름 사이로 배를 저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가까이 와서 보니 설생이었다.

오윤겸은 매우 놀라 설생을 배 안으로 맞이했다. 그가 마치 하늘의 구름 사이에서 내려온 사람인 양 반겼다. 거처하는 곳을 물으니 설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사는 곳은 양양 관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육칠십 리 떨어진

진 회룡굴이란 데지. 깊고 궁벽한 곳이라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닿지 않는다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아 갔다 오는 데 한나절도 안 걸리니 함께 가보지 않겠나?”

공이 그를 따라갔다. 어스름 무렵 산기슭에 이르러서 스님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계곡으로 들어갔다. 험한 산길 몇 리를 지나니 깎은 듯한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었다. 그 형세가 기이하고 웅장해 사람의 눈을 놀라게 했다. 중간이 성문처럼 갈라져 있고 좌우로 맑은 시냇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석문 옆이 회룡굴이었다.

돌길은 낭떠러지를 오른쪽으로 돌며 올라가는데 굴곡이 심하고 가팔랐다. 칙덩굴과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나아가니 비로소 굴이 나왔다. 몸을 구부렀다 매달렸다 하며 들어가 보니 **별천지**였다. 그곳은 땅이 매우 넓고 토질도 비옥하여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뽕나무와 삼나무가 그늘 동산을 만들었고 배와 대추나무는 숲을 이루었다.

설생의 거처는 굴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극히 화려하고 그윽했다. 공을 마루로 인도해 산해진미를 올렸다. 기묘한 과실들이 지극히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인삼은 팔뚝만큼 굵었다.

서로 이끌며 밖으로 나갔다. 수풀과 산봉우리, 샘물과 못 돌의 기괴하고 웅장하고 화사한 모습은 이루 다 형언하기 어려웠다. 오윤겸은 마치 방장산에 들어온 듯 황홀하여 자기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추하게 느껴졌다.

오윤겸이 설생에게 말했다.

“산수가 맑고 깨끗해서 정말 마땅히 은자가 지낼 만하네그러. 가계가 풍족하지 않을 텐데 산중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했나?”

설생이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일찍이 왕래하며 노닌 데가 이곳만이 아니라네. 내가 속세에서 도망쳐 나온 뒤부터 내키는 대로 유람하며 구경하느라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었지. 서쪽으로는 속리산에 들어가 보았고 북쪽으로는 묘향산까지 갔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 두류산 승지를 찾았지. 무릇 동방의 산천 가운데 특별히 절경으로 알려진 곳은 거의 다 가 보았다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무성한 숲을 베어 내 집을 지었고, 황무지는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지. 혹은 일 년을 살다가 혹은 삼 년을 살다가 흥이 다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갔지. 이런 이유로 내가 거처한 곳 중에는 산의 기이함과 물의 절묘함, 그리고 논과 집의 넓고 화려함에서 이곳보다 열배는 더한 곳도 많다네. 다만 세상 사람 중에는 아는 이가 거의 없지.”

오윤겸이 설생의 종들을 보니 모두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많이 들 악기를 익히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모두 첩의 자식들이었다**. 가무를 하는 미희도 여남은 명 되었는데 모두 오묘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오윤겸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

오윤겸은 설생의 특이한 모습을 보면서 티끌 같은 세상에 얽매인 자기를 되돌아보며 **한숨을 쉬고 흐느꼈다**. 시를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거기서 이들을 머물고는 떠나오면서 설생에게 부탁했다.

“뒤편 반드시 한양으로 와서 나를 방문해 주게나.”

그로부터 삼 년 뒤 과연 설생이 오윤겸을 찾아왔다. 오윤겸은 그때 전조를 잡고\* 있어 설생에게 벼슬을 추천하려 했다. 그러자 설생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버렸다.

오윤겸이 휴가를 얻어 설생을 만나고자 고개를 넘어 회룡굴에 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설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 중에도 아는 이가 없었다. 오윤겸이 그 기이한 행적에 크게 탄식하고 애석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 작자 미상, 「오윤겸과 설생의 재회」

## 12. 25001-022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행의 ‘돌아갈 길’은 제2행에서 ‘곤륜산’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제3행의 외부 풍경과 제4행의 내면적 감정은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③ 제5행의 ‘여윈 그림자’의 나약한 이미지는 제7행의 ‘병이 깊어’로 연속되고 있다.
- ④ 제5행의 ‘홀로’라는 화자의 처지는 제8행의 ‘슬픈 울음’과 연결되고 있다.
- ⑤ 제6행과 제8행은 청각적 심상을 바탕으로 대조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13.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제시된 ‘이 몸’과 ㉡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는 서로 상반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증폭한다.
- ② ㉠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는 ㉢에서 ‘우리 몸’이 ‘전선’을 멀리하고 ‘어주’를 선택하는 배경이 된다.
- ③ ㉡에 제시된 ‘이 몸’의 상태는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칠종칠금’의 과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이어진다.
- ④ ㉣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칠종칠금’에 대한 자신감은 ㉢에 제시된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상충한다.
- ⑤ ㉢에서 회유의 대상으로 설정된 ‘너’가 ㉣에 제시된 ‘우리 몸’에 포함됨으로써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14.

<보기>에 제시된 공간을 바탕으로 (다)의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생과 오윤겸이 ㉠에서 맺은 교분이 ㉢에서 균열을 일으킨 것은 두 사람의 사회적 위계가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② 설생이 ㉢로 돌아간 것은 ㉠에서 확인했던 오윤겸의 정치적 입장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믿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③ 오윤겸이 ㉡에서 설생의 삶을 선망하다가 ㉢에서 설생을 동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그의 초라한 행색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④ 오윤겸이 설생에게 다시 ㉢로 오라고 했던 것은 ㉡에서 확인한 설생의 삶이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⑤ 오윤겸이 ㉢를 떠난 설생을 찾아 ㉣를 재방문했을 때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은 오윤겸과 재회하지 않겠다는 설생의 결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5.

(다)의 [A]를 <보기>와 같이 재구성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계축년에 인목 대비 폐비 사건이 일어나자 두 벗은 함께 감개하며 시사(時事)를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은 이렇게 말했다.

“윤리와 기강이 무너졌으니 선비로서 어찌 이 세상에 처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네. 자네도 마음이 있는가?”

오윤겸은 이렇게 응답하였다.

“그게 본디 내가 품었던 마음인데 오늘 자네가 말해 주는 군. 내가 어찌 자네와 함께 은거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부모가 계시니 감히 허락하지 못하겠네.”

- ① 설생의 말에서 기개와 절개를 숭상하는 그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쳐야겠어.
- ② 오윤겸과 설생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오윤겸이 설생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회룡굴을 방문한 오윤겸이 자신의 벼슬살이에 대해 보여 준 회의적인 반응에 개연성을 강화해야겠어.
- ④ 설생이 과거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속세를 떠나 은거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⑤ 설생과 오윤겸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달리 대응한 이유가 가정 환경의 차이에 있었음을 드러내야겠어.

##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개인 차원에서나 공동체 차원에서나 인간이 가진 욕망은 결핍과 충족을 거듭하면서 그 삶을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이 없던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미래에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지를 갖기도 한다. 문학에서 결핍이 충족된 상태는 대체로 이상향적 시·공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가)는 기녀라는 신분적 장벽에 갇혀 지냈던 작가의 자아를 중심으로, (나)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작가의 소망을 중심으로, (다)는 세상에 대한 환멸 때문에 세속을 등진 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욕망의 결핍과 충족의 관계를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옛 언덕’은 작가가 기녀의 처지로 속박되기 이전에 영위했던 삶의 터전으로서, 병든 기녀라는 이중의 결핍감을 느끼지 않았던 과거의 시·공간을 표상하고 있군.
- ② (나)에서 화자는 ‘우리 임금 성덕’을 내세워 대외적으로는 ‘어리석은 섬 오랑캐’에 관용을 베풀고 대내적으로는 ‘요순 군민’이 되겠다는 공동체 차원의 욕망을 부각하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전란을 하나의 결핍으로 여기면서 ‘파도 없는 바다’의 형상에 빗대어 전란 없는 태평성대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향적 시·공간임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다)에서 오윤겸이 ‘별천지’ 같은 회룡굴에서 ‘한숨을 쉬고 흐느꼈’던 것은, 자신의 권력으로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욕망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⑤ (다)에서 설생의 종들이 ‘모두 첩의 자식들’로서 회룡굴에 기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세에서 신분 차별로 인해 느낀 결핍감이 회룡굴에서는 완화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군.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에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신선들이 꺼리도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제1수>

꽃잠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웃으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백만억(百萬億) 창생(蒼生)의 일을 어느 겨를에 물으리  
 <제2수>

하늘이 이지러졌을 제 무슨 기술로 기워 내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할 제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 내었는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제3수>  
 - 윤선도, 「몽천요」

\*오호연월: 은퇴하여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삶.

(나) 양 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남해 태자가 크게 노해 천만 종의 물고기에게 명하자 잉어 제독과 자라 참군이 기운을 돋우더니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다. ㉠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 내고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백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삼시간에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을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엮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징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그때 수문군이 양 원수에게 알려왔다.

“백룡담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아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양 원수가 사람을 보내 맞아들이자 용녀가 원수의 승전을 치하한 후, 술 백 석과 소 백 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백 배나 더했다.

양 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 남해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사방 도적을 치면 일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다. 한 자루의 보검이 있는데 이것은 위징 승상이 경하의 용을 베던 칼이다. 내가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 우리 군사의 위엄을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다.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자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양 원수가 태자를 끌어 내치게 하니 남해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놀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다.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다.

“양 원수가 남해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을 동정 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정사에 매인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 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

시고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한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는가?”

“이미 여덟 용이 수레의 멩에를 갖추었으니 만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양 원수가 용녀와 함께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어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다. 수레가 점점 내려가 동정호에 이르니 용왕이 나와 맞으며 주객의 예를 차리고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 전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용왕이 친히 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인이 부덕하여 한낱 딸자식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하게 못 했는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위세로 남해의 교활한 아이를 사로잡고 딸아이를 구하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텁습니다.”

양 원수가 답사했다.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소유에게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을 울렸다. 음률은 조화로워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 달랐다. 전각 좌우에 장사 천 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울리며 나오는데, 여섯 쌍의 미인들이 부용의를 입고 명월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매를 떨쳐 쌍쌍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양 원수가 용궁의 풍악을 듣다가 물었다.

“이는 무슨 곡조입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에 없던 것입니다.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 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궁중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 전당군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끔 귀주환궁악이라 부르며 궁중 잔치에서 연주했는데, 이제 원수가 남해 태자를 부수어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 줬으니 전당군의 옛일과 흡사하므로 그 이름을 고쳐 원수파군악이라 부르겠습니다.”

양 원수가 또 물었다.

“그 유생이 어디 있으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주산의 선관이 되어 그 마을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술을 아홉 번 돌리고 나자 원수가 하직 인사를 했다.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상서는 또 용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낭자는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용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궁문 밖에 나가 전송할 때, 원수가 문득 보니 앞에 우뚝 솟은 산의 다섯 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유람할 만한 경치였다. 원수가 용왕께 물었다.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 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은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이 산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남악 형산입니다. 신

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해가 아직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고 돌아가도 좋을 것입니다.”

원수가 인사를 하고 수레에 오르자, 이내 형산 아래에 있었다. ㉔길을 찾아 언덕 하나를 지나고 구렁을 건너니, 산이 더욱 높고 점점 지경이 그윽했다. 만경(晩景)이 널려 있어 다 구경할 수 없었다.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 그윽한 생각이 저절로 모여 탄식했다.

“군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이 티끌 인연이 뭐 그리 중한가? 공을 세우고 물러가 초연히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

홀연 경쇠 소리가 수목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절간이 멀지 않은가 보군!”

언덕에 오르니 절이 하나 있는데 전각이 깊고 그윽하여 여러 승려들이 모여 있었다.

㉕한 노승이 높은 곳에 앉아 경문을 외우며 설법하는데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고령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노승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맞으며 말했다.

“산중 사람이 귀가 밝지 못하여 대원수가 오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모름지기 전각에 올라 합장 배례하고 돌아가십시오.”

원수가 곧 불전에 나아가 분향배례하고 전각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놀라 깨어났다.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책상에 기대어 있었고, 아침은 이미 밝아 있었다.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들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이 일제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장들도 꿈에 원수를 따라 신병귀졸과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을 좋은 조짐입니다.”

원수가 꿈속의 일을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백룡담에 가 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에 즐비하고 흐르는 피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원수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그러자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다.

양 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다.

- 김만중, 「구운몽」

### 17. 25001-0234

(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시적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제2수>에서는 <제1수>와 유사한 형식의 구절을 배치하여 화자를 대하는 인물들의 시각을 중첩적인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
- ③ <제3수>에서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적인 한계를 유추하여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제1수>와 달리 <제3수>에서는 사물에 나타난 명암 대비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제2수>와 <제3수>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몽천요」는 작가가 66세이던 해 효종 임금의 사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를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임명하자 고관 대신들이 이를 문제 삼아 탄핵을 일으킨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윤선도 개인적으로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것이지만 다른 대신들은 임금의 사부라는 인연으로 벼슬을 내린 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가 자연에 은거하다가 17년 만에 속세로 돌아왔지만 시기와 험뜯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과 현실로 돌아와서 받은 실망, 좌절감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화자가 ‘백옥경에 올라가’ 게 된 것은 작가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곳에 나아간 일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옥황상제’가 화자를 ‘반기시’는 모습은 임금이 사부인 작가를 예우하여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임명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화자를 ‘꾸짖는’ ‘신선들’은 높은 벼슬에 오른 작가에 대한 시기와 험뜯음으로 탄핵을 일으킨 조정의 고관 대신들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가 ‘오호연월이 내 분수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에 은거하다가 속세의 벼슬자리로 돌아와서 받은 실망과 좌절감이 담긴 목소리라고 할 수 있군.
- ⑤ ‘하늘이 이지러졌’으므로 이를 ‘기위’ 낼 방안을 모색하는 화자의 모습은 작가가 세상에 대한 허탈한 마음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19.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 원수는 남해 태자가 과거에 홀로 인간을 위해 베푼 공로와 업적을 인정하여 그를 용서했다.
- ② 동정 용왕이 양 원수의 업적을 치하하려고 잔치에 초청하자 양 원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수락했다.
- ③ 양 원수는 남해 태자와 싸워서 이기고 용왕의 딸을 위기에서 구해 낸 승리의 공로를 용왕에게 돌렸다.
- ④ 동정 용왕은, 양 원수가 바라보며 오르고 싶어 한 산의 이름조차 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 ⑤ 양 원수가 산속에 들어가 이른 절에서 만난 노승과 그의 제자들은 양 원수의 방문을 예상하고 마중을 나왔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성취는 화자가 실망과 회의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 ② ㉡는 양 원수에게 미래에 일어날 운명적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는 각각 화자와 양 원수가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돕고 있다.
- ④ ㉠, ㉡는 모두 초월적 존재로서 각각 화자와 양 원수를 조력하고 있다.
- ⑤ ㉠, ㉡의 행위는 각각 화자와 양 원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있다.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인공이 전쟁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환상적인 배경 속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사건 전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 인물이 생소하게 느끼는 감각을 통해 비현실적인 공간에 놓여 있는 인물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거대한 자연 경관의 형상을 통해 인물의 앞길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애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인물이 기존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진입하는 경과를 지리적 특징에 대한 묘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나) 모두에서 꿈은 작품의 제재이면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가 되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 꿈은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현실에서의 결핍과 불만은 꿈을 꾸게 되는 요인이 되는 까닭에 꿈은 그 주체의 욕망과 이상을 집약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이 꿈속에서 경험으로 구현되기도 하고,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꿈속 세계를 빌려 나타내 보임으로써 현실을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또한, 현실에서의 방관자가 꿈에서는 참여자가 되어 현실의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꿈속 이상 세계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성취하기도 한다.

- ① (가)의 화자는 꿈에 천상계로 가서 특정 대상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설정을 통해 현실에서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꿈속 세계에서 만나게 된 두 대상의 모습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특정 부류에 대한 화자의 불만과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양 원수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울 만큼 모순으로 가득한 현실을 꿈속 세계를 통해 나타내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나)의 양 원수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적 삶에서 얻게 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상 세계를 꿈속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와 (나)의 양 원수는 모두 꿈속에서 욕망 충족을 위한 참여자가 되지만 자신의 궁극적 욕망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가) 어와 여종들아 이내 말삼 들어 보소

이해가 어떤 해노 우리 임금 화갑(華甲)\*이라  
 화봉의 축원(祝願)\*으로 우리 임금 축수(祝手)하고  
 강구(康衢)\*의 격양가(擊壤歌)\* **우리 여인 화답하네**  
 인정전 높은 전 수연(壽宴)\*을 배설하니  
 백관(百官) 헌수(獻壽)\*하고 창생(蒼生)은 고무(鼓舞)한다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慶科)\*를 보이시니  
 목목(穆穆)하신\* 우리 임금 서일(瑞日)\*같이 임하시고  
 빈빈(彬彬)한 명유(名儒)들은 화상(華床)\*에 분주하다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노  
 불한불열(不寒不熱) 삼춘(三春)이라  
 심류청사(深柳靑絲)\* 드린 곳에 황앵(黃鶯) 편편(片片)하고  
 천봉수장(天崩繡帳)\* 베푼 곳에 봉접(蜂蝶)이 분분(紛紛)하다  
 우리 황앵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太平世)에 아니 놀  
 고 무엇 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일자를 정차 하니 길일양사(吉日良事)\* 언제런고  
 이월이라 염오일(念五日)\*은 청명시절(淸明時節)\*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 닫고야  
 아이종 급히 불러 **앞뒤틀집 서로 일러**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應粧盛飾)\* 찬란하다  
 원산(遠山) 같은 눈썹이랑 아미(蛾眉)로 다스리고  
 횡운(橫雲) 같은 귀밑일랑 선빈(鮮鬢)\*으로 꾸미도다  
 동해에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추양(秋陽)에 바랜 베를 연반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佳麗江山) 찾았으며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山明秀麗)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빠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泰山) 같은 고봉준령(高峯峻嶺)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勝地)에 다닫거다

(중략)

청계변에 복성꽃은 무릉원(武陵源)이 의연(毅然)하다  
**이러한 좋은 경개** 흠 없이 다 즐기니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화간(花間)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규중(閨中)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快)한지고  
 흉금(胸襟)이 상연(爽然)\*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長長春日)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층암고산(層岩高山)에 모연(暮煙)\*이 일어나고  
 벽수동리(碧樹洞裏)에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興)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취객(自然醉客)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時和歲豐)\* 하거들랑 **창안백발(蒼顏白髮)\*** 흘날리고  
 고향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화갑: 화갑자. 육십갑자의 한 주기로서 60세가 되는 해. 또는 그 나이.
- \*화봉의 축원: ‘화’ 라는 벼슬아치가 요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축하했다는 고사를 인용함.
- \*강구: 변화한 거리.
- \*격양가: 임금의 성덕과 나라의 태평을 칭송하는 노래. ‘고복격양’ 이라는 고사에 언급됨.
- \*수연: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
- \*헌수: 환갑잔치 따위에서,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림.
- \*경과: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 시험.
- \*목목하신: 위엄 있는 모습이 가득하신.
- \*서일: 상서로운 해.
- \*화상: 화갑 상.
- \*심류청사: 버드나무 푸른 가지.
- \*천봉수장: 하늘을 헐어 내어 수놓아 펼쳐 놓은 장막.
- \*길일양사: 일을 벌이기에 좋은 날.
- \*염오일: 이십오 일.
- \*청명시절: ‘청명’ 은 춘분과 곡우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청명’ 이 있는 시기.
- \*응장성식: 호화로운 장식.
- \*선빈: 고운 머리채.
- \*상연: 심신이 다 상쾌한 모양.
- \*모연: 저녁 안개.
- \*숙조: 잠을 자러 가는 새.
- \*시화세풍: 나라 안이 태평하고, 또 풍년이 듭.
- \*창안백발: 늙은이의 쇠한 얼굴빛과 하얗게 센 머리털.

(나) 풍악을 일시에 연주하니 과연 큰 고을의 풍악이었다. 소리가 길고도 조화로운 것이 가히 들을 만하였다. 모든 기생이 쌍을 짓고 마주 서서 춤을 추게 하여 하루 종일 놀았다. 날이 어두워 돌아올 때에 풍악을 가마 앞에 길게 늘어세워 연주하게 하였다. **청사초롱** 수십 쌍을 곱게 입은 기생들이 쌍쌍이 들고섰으며, **햇불**을 관아의 하인들이 수없이 들고 나섰다. 가마 속의 밝기가 낮과도 같으니 밖의 광경이 털끝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였다. 붉은 비단에 푸른 비단을 이어 초롱을 하였으니, 그림자가 아롱거려 그런 장관이 없었다.

㉠군영의 대장이 비록 야간 행차에 비단 초롱을 켜다 한들 어찌 이것보다 훌륭하겠는가. 풍악 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고 초롱 빛은 사방을 밝게 비치니, 스스로 규중의 보잘것없는 부녀자임을 아주 잊어버렸다.

㉡허리에 다섯 개의 관인을 차고 몸은 문무를 함께 지닌 장상으로 그 공적이 높고도 커 어느 곳에서인가 군공을 세우고 승전곡을 울리며 태평궁궐을 향하는 듯, 좌우로 일렁이는 불빛과 군악 소리가 내 호기를 돕는 듯, 몸이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마차 안에 앉아 대로를 달리는 듯, 우쭐한 마음에 즐거워하며 관아로 왔다.

관문에 이르러 관아의 마루 아래 가마를 내려놓으니, 아름답던 초롱들은 못별들이 태양을 맞아 사그라지듯 사라졌다.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저절로 대청에 올라 머리를 만져 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에 장식이 그대로 달려 있고, 허리를 만져 보니 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제서야 이 몸이 여자임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오니 바느질과 길쌈하던 것이 좌우에 놓여 있었다. 마음이 즐거워져 손뼉을 치고 웃었다.

북산루가 불에 타 다시 지으니 더욱 굉장하고 빼어났으며, 단청 또한 새로웠다.

순찰사였던 **채제공**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이름하기를 무점루라 하고,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고 하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민가가 뻑뻑하게 들어선 곳에 있어서 가지 못했다.

신묘년 시월 보름날, 달빛이 대낮같이 환하고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려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경치가 맑고 깨끗하며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하니,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니 허락하셨다.

독교를 타고 오르니 누각은 아득하여 하늘가에 비낀 듯하고, 팔작지붕이 날아갈 듯하여 가히 볼만했다. 달빛 아래 바라보니 희미한 누각이 하늘에 솟아 떠오른 듯하니, 더욱 기이하였다.

누각 안에 들어가니 넓이가 여섯 칸은 되었다. 새로 단청을 하였는데 모퉁이마다 구석구석 초롱대를 세우고 쌍쌍이 촛불을 켜 놓았다. 불빛이 환하여 낮 같은데, 눈을 들어 살피니 단청을 새로 한 모습이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기둥과 반자를 짠 듯하였다.

서쪽 창문을 여니 누각 아래 시장을 벌이던 집들이 마치 한양성 외곽의 지물포 같았고, 곳곳에 가게가 죽 늘어서 있었다. 누각 위에서 즐비한 민가를 보니 천호만가를 손으로 헤아릴 듯하였다. 성의 누각을 굽이돌아 보니 집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것이 한양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은 **한양의 남대문** 누각이라도 이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다. 심신이 울렁거리니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기생들을 실컷 먹이고 즐겼다. 중군이 장한 달빛을 받으며 대완을 타고 누하문을 나가는데, 풍악을 울리며 만세교 쪽으로 나가니 그 요란스러운 행차가 또한 신기해 보였다. ㉠백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잡담하며 무리 지어 다니는 것이 꼭 한양 같아서, 건달들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듯싶었다.

㉡이날 밤이 다하도록 놀다 왔다.

- 의유당, 「의유당관북유람일기」

- (다) 앓고 나니 어느새 살구꽃 피는 날도 저물어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 않은 배와 같네  
 일없어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그윽한 생활은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네  
 ㉣상자 속의 시구절 누가 화답해 주랴  
 거울 속의 파리한 얼굴 내 보기도 가엾구나  
 스물세 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절반은 바느질로 절반은 시를 쓰며 보냈지

- 박죽서, 「병에서 일어난 후」

### 23. 25001-0240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와 여종들아’와 같이 대상을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해’에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고 있다.
- ② ‘우리 여인 화답하네’, ‘우리 비록 여자라도’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앞뒷집 서로 일러’, ‘노소 없이 다 모이어’와 같이 자신이 ‘손꼽고 바라’던 행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④ ‘소선의 적벽’, ‘이백의 채석’과 같이 널리 알려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좋은 경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암하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와 같이 인사를 건네면서 ‘창안백발’이 될 때까지 다시 찾아오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24.

우리 임금 화갑과 관련지어 [A]에 제시된 시어 및 시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봉의 축원’과 ‘격양가’는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임금이 이것을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들겠군.
- ② ‘인정전 높은 전’은 ‘우리 임금’의 장수를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진 공간적 배경이며, ‘백관’과 ‘창생’은 그곳에 모여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는 여러 신하와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겠군.
- ③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는 ‘우리 임금 화갑’을 축하하기 위해 진행된 과거 시험을 의미하며, ‘빈빈한 명유’는 과거를 치르려고 춘당대를 찾은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이렇듯이 좋은 해’가 ‘우리 임금 화갑’이 있는 해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면, ‘불한불열 삼춘’은 ‘황앵 편편하고’, ‘봉접이 분분하’여 여인들이 나들이 가기 좋은 때를 의미하는 것이군.
- ⑤ ‘이러한 태평세’가 ‘우리 임금’이 만든 평화로운 시절을 뜻하는 것이라면, ‘아니 놀고 무엇하리’는 ‘우리 임금 화갑’을 핑계 삼아 꽃을 즐기러 가고 싶은 마음을 밝힌 것이군.

### 25.

<보기>와 관련지어 (나)의 글쓴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행 문학을 쓰는 글쓴이는 여행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감상을 덧붙인다. 또한 자신의 체험에 대한 만족감이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여행에 의미를 부여한다. 글쓴이는 특정 공간의 물리적 요소, 심리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은 글쓴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장소로 재구성된다.

- ① 기생들이 들고 있는 ‘청사초롱’, 관아의 하인들이 들고 나선 ‘햇불’ 등 야간 행차에서 빛이 만들어 내는 광경에 주목하며 그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체제공이 서문루를 새로 지어’ ‘무검루’라고 부른 것, 그 경치와 누각이 기이하다는 것 등 여행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추가하여 서술하고 있군.
- ③ ‘신묘년 시월 보름날’에 ‘달빛을 빌려 누각에 오르고자 원님께 청하’여 허락을 받았음을 언급하는 등 ‘서문루’에 갔던 날의 여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군.
- ④ ‘독교를 타고 오르’고, ‘팔작지붕’을 구경하고, ‘누각 안에 들어가’고, ‘서쪽 창문을’ 열어 보는 등 ‘서문루’의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체험을 하고 있군.
- ⑤ ‘서문루’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양의 남대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군.

26.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이월 염오일에 있었던 일이라면, ㉡는 신묘년 시월 보름날의 밤을 뜻한다.
- ② ㉠이 서산에 해가 지면서 마무리되었다면, ㉡의 행차는 해가 지고 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 ③ ㉠을 하기 더 나은 장소를 화자와 여인들이 물색하였다면, ㉡의 행차를 위한 장소를 글쓴이는 마음속에 정해 두고 있었다.
- ④ ㉠을 위해 화자와 여인들은 스스로 단장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 행차를 위해 글쓴이가 어떠한 단장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을 통해 화자는 규중에서 생긴 시름을 풀어냈다고 말하고 있고, ㉡의 행차를 통해 글쓴이는 한양에서의 풍류를 그리워하다 생긴 시름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27.

<보기>와 관련지어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적 삶에 주목하는 여성 작가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도 하고,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분명 ‘계녀(誡女), 사친(思親), 탄식’ 등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드러내던 조선 전기와는 달라진 흐름이었다.

(나)는 의유당이 지은 수필로, 격조 높은 안목과 섬세한 표현으로 세상을 즐기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여성 문인 박죽서의 한시로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회한을 고백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 문인들로 구성된 삼호정 모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 짓기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 ① ㉠은 한 가문에 속한 부녀자인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장상’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글쓴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한 기분을 뽐내고 싶은 욕망을 지닌 인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을 떠올렸던 글쓴이가 자신의 현실적 지위를 깨닫는 순간을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낸 것으로, 글쓴이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상황을 자각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기생집으로 다니며 호강하는 건달들을 부러워하는 글쓴이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여성들의 숨겨진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시를 짓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재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작가로서의 욕망과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부녀자로서의 제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였음과 여성 문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밝힌 것으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과 시 짓기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는 모두 화자 또는 글쓴이가 닮고 싶은 대상으로 화자나 글쓴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는 모두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존재로 화자나 글쓴이가 부러워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모습을 빗대고 있다.
- ③ ㉦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와 ㉨는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삶과 비교되는 대상으로 글쓴이의 경험이나 화자의 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와 ㉧가 화자나 글쓴이가 따르고 싶은 존재로서 그를 따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면 ㉨는 화자가 따르고 싶지 않은 존재로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와 ㉨가 초월 세계의 존재로서 화자의 처지나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면, ㉧는 현실 세계의 존재로서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과 글쓴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깬,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디두 앉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썰김질하  
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피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턱정을 쳐다보  
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긋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  
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  
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 들었다.

(나)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무슨 주의(主義)의 옛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  
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흙집투성이 몸통뿐.

하늘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 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神木)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國道邊)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기운에  
㉣대장간의 낮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툽니들이 갈수록 뽀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詩)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  
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  
지저귀지 않아도

- 최승호,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다)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는 내[품]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 하였다.

내가 장기(長鬢)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  
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  
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  
[품]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  
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  
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  
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  
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품]  
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듬에 일정  
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  
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  
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  
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품]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  
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

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였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烏帽]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㉔이때에는 나[吾]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吾]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苧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吾]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엷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吾]를 잃고 나를 좇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吾]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吾]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吾]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

- 정약용, 「수오재기」

\*태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을 뜻함.

## 29. 25001-024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접속어를 활용하여 시상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어순의 도치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유법을 사용하여 정서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추상적인 대상인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감각할 수 있는 사물처럼 드러내어 화자가 겪는 감정의 깊이를 보여 준다.
- ② ㉡: 추상적인 대상인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삶을 좌우하는 외부의 힘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③ ㉢: 추상적인 대상인 ‘내 영혼’을 상징적 소재로 나타내어 화자의 상처 입은 내면을 보여 준다.

④ ㉣: 추상적인 대상인 ‘시퍼런 생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어 강인한 저항 의지를 지닌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 추상적인 대상인 ‘나[吾]’를 글쓴이 자신과 분리된 대상인 것처럼 드러내어, 글쓴이가 겪었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

## 31.

[한 방]과 [허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방]은 ‘나’가 자신의 감정을 정화하는 공간이고, [허공]은 ‘나’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공간이다.
- ② [한 방]은 ‘나’가 시련에 따른 무력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허공]은 ‘나’가 시련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공간이다.
- ③ [한 방]은 ‘나’가 유랑하다가 머물러 쉬는 공간이고, [허공]은 ‘나’가 번민하다가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 공간이다.
- ④ [한 방]은 ‘나’가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이고, [허공]은 ‘나’가 세속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 ⑤ [한 방]은 ‘나’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고, [허공]은 ‘나’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부정적임을 깨닫는 공간이다.

##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특정 대상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타인과의 논쟁에서 비롯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자신이 제시한 일반적 판단이 옳음을 입증하고 있다.
- ④ 인과적 서술을 통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경험이 담긴 일화를 제시하여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33.

(다)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둘째 형님이 자신과 달리 나[吾]를 잃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글쓴이는 과거 공부에 전념하고 벼슬살이를 하면서 나[吾]를 지키고자 힘썼다.
- ③ 글쓴이는 귀양을 온 뒤에야 나[吾]를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음을 드러낸다.
- ④ 글쓴이는 장기로 귀양을 오기 전 ‘수오재’라는 명칭에 대해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 ⑤ 글쓴이는 ‘태현’을 지키려 했다는 점이 형님이 ‘수오재’의 이름을 붙인 본래 의도임을 밝힌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작가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성찰의 내용을 문학 작품 속에 구현한다. 이때 작품에는 삶의 문제에 직면한 성찰의 주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도 하고 외부 세계에서 찾기도 한다.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자아상을 모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되새기다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 이 있었다는 것은 삶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면서 화자가 겪는 심리적 변화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굳고 정한 갈매나무’ 는 화자가 추구하는 자아상이 투영된 대상으로 의연하게 시련을 견디는 삶의 태도를 표상하는군.
- ③ (나)에서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는 말에는 문제를 유발한 외부 세계의 존재가 화자의 슬픔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담겨 있군.
- ④ (나)에서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 면서 ‘앞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눠 주는 시를’ 쓸 상황을 상상하는 모습을 통해, 고통을 극복한 결실로서 시를 쓰고 싶다는 삶의 지향이 드러나는군.
- ⑤ (다)에서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에 앉아 계’ 신 ‘큰형님’ 은, 삶의 문제에 직면한 글쓴이가 바람직한 자아상을 모색한 결과 ‘나[吾]’ 를 지키는 삶의 본보기로 떠올린 것이겠군.

(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나)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어**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A]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빗을 것을 벗어 버렸다.

[B]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C]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

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굼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 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타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마침내 노래한다.

- 김창흡, 「낙치설」

\*팔풍: ‘팔음’을 뜻함.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눈, 아악(雅樂)에서 쓰는 여덟 가지 악기. 또는 그 각각의 소리.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를.

### 35. 25001-025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감탄사를 통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구의 반복을 통해 발화 의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어법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36.

꺾나무와 겨울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꺾나무는 화자가 대면한 세계의 완고함을, 겨울나무는 화자의 내면을 채운 허무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② 꺾나무는 화자가 지니고 있던 편견을, 겨울나무는 화자가 유지하려 했던 희망을 함의하는 대상이다.
- ③ 꺾나무와 겨울나무는 모두 화자가 혼자만 알고 있고 싶어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대상이다.
- ④ 꺾나무와 겨울나무는 모두 인위적 존재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 ⑤ 꺾나무와 겨울나무는 모두 섭리에 관한 화자의 인식을 환기하는 대상이다.

### 37.

시상의 전개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숨 가쁜 나무여’를 통해 화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의 대상을 호명함으로써 [A]의 중심이 되는 소재를 환기하고 있군.
- ② ‘스물 안팎 때’와 ‘마흔 가까운 / 손등이 앙상한 때’라는 시구를 활용함으로써 [A]와 [B]가 각각 지시하는 시기를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군.
- ③ ‘벗어 버렸다’와 ‘탕에 들어앉아’를 보면 서로 관련 있는 상태와 행위를 가리키는 시구들을 활용함으로써 [B]와 [C]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군.
- ④ ‘비로소’라는 시어로 시작함으로써 [C]가 깨달음을 드러내는 부분임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군.
- ⑤ ‘따름이다’에서 현재 시제의 진술을 사용함으로써 [C]가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군.

### 38.

(다)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가 빠진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수용해 보려는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② ㉡: 이가 빠져 일어난 변화 중 글쓴이가 크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다.
- ③ ㉢: 이가 빠진 이후의 신체적 변화가 글쓴이의 일상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 ④ ㉣: 글쓴이가 자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인물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⑤ ㉤: 늙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여 화자의 회한을 부각하고 있군.
- ② ㉡은 색채어를 포함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공간이 환기하는 평온함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③ ㉢은 역동성을 환기하는 시구를 통해 혼돈과 방황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군.
- ④ ㉣은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군.
- ⑤ ㉤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소망하는 추상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군.

### 40.

<보기>에 따라 (가)~(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점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존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담은 문학 작품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중년 이후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생명의 소멸에 천천히 가까이 가는 노화(老化)의 과정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느끼거나, 이전보다 성숙해진 관점에 따른 성찰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가)~(다)를 감상해 볼까요?

- ① (가)에서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걸으며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낀다고 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 ② (가)에서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의 풍경으로 ‘설레는 구름과 바람’을 언급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과 조응하는 것 같아.
- ③ (나)에서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를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라고 한 것에는 노화의 과정이 되도록 천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④ (다)에서 글쓴이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고 한 것은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게 되어 생명이 소멸할 단계에 가까이 가는 과정을 애달파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 ⑤ (다)에서 이가 빠졌기 때문에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이 편안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한 것은 글쓴이가 이전보다 성숙해진 관점에 따른 성찰을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가)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라.  
감나무 잎새를 반짝이는 게  
어찌 햇살뿐이라.  
아까는 오색딱다구리가  
따다다닥 짝고 가더니  
봐 봐, 시방은 청설모가  
쪼르르 타고 내려오네.  
㉠사랑이 끝났기로서니  
그리움마저 사라지랴.  
그 그리움 날로 자라면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때론 머리 위로 흰구름 이고  
때론 온종일 장대비 맞아보게.  
이별까지 나눈 마당에  
기다림은 왜 것이라만,  
㉢감나무 그늘에 평상을 놓고  
그래 그래, 밤이면 잠 뒤척여  
산이 우는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이면 퍼뜩 깨어나  
계곡 물소리도 들어보게.  
그 기다림 날로 익으니  
서러움까지 익어선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은 어찌 환하지 않으랴.  
하늘은 어찌 부치지 않으랴.

- 고재중, 「감나무 그늘 아래」

(나) 번짐,  
목련꽃은 번져 사라지고  
여름이 되고  
너는 내게로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번짐,  
번져야 살지  
꽃은 번져 열매가 되고  
여름은 번져 가을이 된다  
번짐,  
음악은 번져 그림이 되고  
삶은 번져 죽음이 된다  
죽음은 그러므로 번져서  
이 삶을 다 환히 밝힌다  
또 한번 - 저녁은 번져 밤이 된다  
번짐,  
번져야 사랑이지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 장석남, 「수목 정원 9-번짐」

(다) 창해옹(滄海翁)의 성은 정(鄭)이요, 이름은 란(瀾)으로, 영남 사람이다. 옹이 먼 영남으로부터 와서 남성(南城)에 있는 나를 방문하였다. 옹을 보니 이마가 넓고 콧날이 우뚝하며, 양미간이 시원스럽게 넓었고, 의관은 크고 혈렁하여 지금 세상의 복장이 아니었다. 나는 서둘러 뜰로 내려가 맞아들여 절한 후 모시고 앉아 옹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기이한 풍정이 강렬하게 풍겼고, 기세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옹은 이런 말씀을 했다.

[B] “사람이 살아가며 활개 치고 다니는 것은 정신이요, 사물과 접하는 것은 눈일세. 그 정신이 막히면 속이 답답하고, 세상 구경하는 것이 협소하면 시야가 좁아지지. 정신과 세상 구경, 둘 다 협소하면 사람의 기운이 크게 펼쳐지지 못하는 법이네. 늙은이의 눈으로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을 보면, 겨우 진흙 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에에 불과하다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선생의 말씀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거침없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옹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자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게 있네. 세상에서는 추자(騶子)\*가 하는 말을 인간의 사고로는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면서도 휘둥그레 눈을 뜨고 빨려 들어가지. 그러나 ㉤허황한 세계를 추측하느니 존재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낫고, 말을 과장하여 하느니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 낫네.

해동의 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힘을 다한다면 나의 정신을 넓게 트이게 할 수 있네. 이 늙은이가 서른이 되어 청노새 한 마리, 아이종 하나, 보따리 하나, 이불 한 채를 가지고 길을 나서서, 남으로는 낙동강을 노닐고 덕유산을 오르고 속리산을 더듬고 월출산을 오르고 지리산을 엿보았고, 서로는 대동강을 굽어보고, 동으로는 태백산과 소백산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을 두 번 들어간 뒤 바닷가를 따라 돌아왔네. 오직 북쪽의 백두산과 남쪽의 한라산에만 아직도 창해옹의 족적이 없단 말씀이야. 허나 이 늙은이는 아직 노쇠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유산기(遊山記) 한 권을 꺼내 보여 주었다. 무너진 담장 아래 깔아지른 듯한 벼랑 밑에서 피곤에 지쳐 쉴 적에, 등불을 밝히고 나무껍질을 벗겨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써 내려간 글이었다. 그의 글은 꾸미기를 일삼지 않고 정사(情思)가 뛰놀아서 구애를 받은 데가 없었다. 또 그림이 중간에 섞여 있는데, 산의 맥을 찾고 물길을 따지며 깊이를 헤아리고 먼 거리를 본땀기에 명백하여 속이 시원하였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말씀을 올렸다.

“더럽고 시끄러운 세상의 평범한 인간이라, 선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을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상하게 구는 분인 줄로 착각했으니, 창해옹을 잘못 알 뻔했습니다. 이제야 선생을 알겠습니다.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서 표연히 훌쩍 세상을 벗어나서 노니는 옛사람이 아닌지요? 선생을 뵈고 나니, 허둥지둥 세상을 출입하여 조그만 이해(利害)를 보기만 하면 황급히 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을 다시는 감히 선비라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 해 남짓 지나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창해옹이었다. ㉥백두산에서 오는 길이었다. 내게 오가는 길의 험난함과 유람에서 겪은 풍부한 사연, 산골짜

기와 바위 동굴의 기이한 경치, 구름과 안개 초목의 온갖 변화를 말해 주었다. 촛불 심지 몇 개가 타들어 갈 때까지 흥미진진하게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창해옹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오호라! 먼 옛날 열어구(列禦寇)\*와 장자(莊子) 같은 무리는 입이 닳고 혀가 타도록 도(道)를 지닌 자를 칭찬했지만, 허공을 가르고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텅 빈 세계를 찾아 소요하는 자에 불과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기괴하고, 그들의 지향은 반드시 제멋대로여서 성인(聖人)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들 배척한다. **우리 성인께서는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둔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찌서 듣지 못했을까?** 진실로 마음의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공자(孔子)와 안연(顏淵)이 즐긴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굳이 “도는 제각기 같지 않으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창해옹의 즐거움은 산수 사이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 헤아릴 수 없구나!**

근래 탐라(耽羅)에서 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어떤 이가 지팡이를 짚고 짧은 벼옷을 입은 채 남해 바닷가에 서 있더라 했다. **㉠아! 분명 창해옹일 것이다.**

- 강이천, 「창해옹의 산수 여행」

\*추자: 제나라의 학자로 음양오행 사상에 대해 뛰어난 식견을 지녔음.

\*열어구: 전국 시대 정나라 사람으로, 노자 계통의 학자임.

## 41. 25001-025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괴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사물처럼 표현하여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42.

(다)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창해옹을 처음 보았을 때 그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 ② 글쓴이는 창해옹의 유산기를 통해 창해옹이 여행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 ③ 창해옹은 우리나라의 땅이 좁지만 여기저기 여행한다면 안목을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 ④ 글쓴이는 창해옹이 산수 사이를 여행하는 방식으로 제 나름의 도를 추구한다고 평가했다.
- ⑤ 창해옹은 외모만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글쓴이에게 진정한 선비의 자세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 43.

[A]와 [B]에 쓰인 소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음악’은 ‘그림’에, [B]에서 ‘정신’은 ‘시야’에 영향을 미친다.
- ② [A]에서 ‘저녁’과 ‘밤’은 유한성을, [B]의 ‘지렁이’와 ‘등에’는 무한성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③ [A]에서 ‘죽음’은 ‘삶’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하고, [B]에서 ‘숙’은 ‘시야’를 넓히는 도구에 해당한다.
- ④ [A]에서 ‘삶’은 ‘죽음’과 순환하는 관계에 해당하고, [B]에서 ‘세상 구경’은 ‘시야’를 넓히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 ⑤ [A]에서 ‘그림’과 ‘음악’은 상호 대립적 관계이고, [B]에서 ‘늪은이’와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로 인해 괴로워하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대조적 의미의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쉼표와 행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여 ‘번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은 대구법을 활용하여 창해옹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영탄법을 사용하여 창해옹의 삶에 대한 글쓴이의 경이감을 나타내고 있다.

## 45.

㉠과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과의 이질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동화되는 공간이다.
- ② ㉠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공간이고, ㉡는 자신이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 ㉡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미래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고, ㉡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다.
- ⑤ ㉠은 변화하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는 변화하는 자연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다.

46.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흔히 작가는 표현하려는 것을 특정 대상에 빗대는 방식으로 주제를 참신하게 드러낸다. (가)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에 빗대어 이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내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움을 이루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먹의 번짐 효과나 피사체들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는 수묵화 기법에 빗대어 계절의 변화, 인간 간의 관계 맺음,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 여러 존재가 서로에게 스며들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는 옛사람이 추구한 삶의 방식에 빗대어 창해옹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찬을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에서 ‘그 그리움 날로 자라’ 서 ‘주먹송이처럼 커갈 땡감들’ 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땡감이 커 가는 모습에 빗대어 이별 후 그리움이 심화되는 인간사의 한 단면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서러움까지 익어선 / 저 질푸른 감들, 마침내 / 형형 등불을 밝힐 것이라’ 는 것은 땡감이 홍시가 되는 모습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회복해도 이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나)에서 ‘너는 내게로 / 번져 어느덧 내가 되고 / 나는 다시 네게로 번진다’ 는 것은 먹이 종이에 번지는 수묵화 기법을 활용해 인간의 관계 맺음이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나)에서 ‘산기슭의 오두막 한 채 번져서 / 봄 나비 한 마리 날아온다’ 라고 한 것은 피사체들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는 수묵화 기법에 빗대어 자연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다)에서 ‘우리 성인께서는 마음으로 얻은 것에 즐거움을 둔다’ 고 하며 ‘창해옹의 즐거움은 산수 사이에서 얻은 것이 아닌가? 헤아릴 수 없구나!’ 라고 한 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용하여 창해옹도 마음으로 얻는 즐거움을 추구한 인물임을 나타낸 것이로군.

(가)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켜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불현듯 불꽃나무! 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 이문재,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나) 찰찰하신 노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거름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마는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 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그 별별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잠화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룩누룩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덴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로 텐데…….”

물을 주고 날 때마다,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못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소나기라도 한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로 내리어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고이였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리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중에도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 층층이 테를 두르고 겹가지 셋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사 층 나무도 되고 오 층으로 된 나무도 있다. 장미는 홍예문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 마당으로 청하여 이것들을 구경시키었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해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주인의 재공\*을 치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사 층 나무 오 층 나무의 석류보다도 나의 눈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해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떨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무력무력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뺨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이어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었다.

[A]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포기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각,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 이태준, 「화단」

\*손아: 손자.

\*재공: 지닌 재주로 이룬 공적.

(다) 어떤 이가 내게 물었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B]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生)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 세상 만물이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며 깊고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할 따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으니 ‘인민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 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며 만물은 그다음이지요.

군자가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으며,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어질게 대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물고기를 잡을 때 촘촘한 그물을 쓰지 않는다’, ‘나무를 벨 때 적당히 자란 것에만 도끼를 댄다’, ‘길이가 한 자 되지 않는 물고기는 시장에서 팔 수 없다’, ‘사냥하되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는다’, ‘그물을 쳐 놓고 새가 잡혀 들지 않기를 빈다’, ‘닭시질은 하되 그 물질은 하지 않는다’, ‘활을 쏘되 잠든 새는 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모두 그런 뜻입니다. 『시경』에 있는 이 노래도 같은 뜻이지요.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다섯을 잡나니  
 어허! 어진 분이시도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임금이 백익\*으로 하여금 산과 연못에 불을 지르게 하여 호랑이며 표범이며 무소며 코끼리를 내몰아 멀리 쫓아 버렸다’, ‘봄·여름·가을·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에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이 일흔 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주역』에서 ‘그물을 만들어 사냥하고 고기를 잡는다’ 라고 한 말이 모두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늙고 병든 인민을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물고기 잡고 사냥하는 것은 잔치와 제사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하는 것이며, 어질게 대한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살생하더라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을 좋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백 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라는 『서경』의 기록은 태강\*이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일을 원망한 것이요, ㉠ ‘불이 타오르니 일제히 일어나네’ 라는 『시경』의 노래는 공숙단\*이 숲에 불을 질러 짐승을 한쪽으로 몬 뒤 사냥했던 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할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을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 라고 할 것이며,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공자(孔子)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라고만 묻고 마구간의 말이 상했는지는 묻지 않으셨다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뜻이지요.”

또 이렇게 물었다.

“불교의 책에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계율로 삼았는데, ㉡이 것이 참으로 선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그 고기를 먹여 인민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 죽여 인육을 먹기에 이른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시습, 「애물의」

\*백익: 순임금과 우임금 때의 신하. 순임금 때 산과 하천의 관리의 총책임자 역할을 했고, 우임금 때 치수 사업에 큰 공을 세움.

\*태강: 하나라의 제3대 임금.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낙수에 1백 일 동안 사냥을 나가는 등 유희를 일삼다가 왕위를 잃음.

\*공숙단: 춘추 시대 정나라 장공의 아우로, 용맹하기로 이름 높았음.

## 47. 25001-0264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 상황 제시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특정 상황에 놓인 대상들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사물을 인격화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48.

(나)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은 글쓴이가 관찰하는 인물로서 손주들을 데리고 병든 화단을 정성 들여 보살피고 있다.
- ② ‘노인’은 화단에 물을 주거나 화단 곁에 머물 때 자신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말라 가는 화단의 식물에 대해 속상해하였다.
- ③ ‘노인’은 서화를 좋아하고 화초 가꾸는 것을 일로 삼는 이로서 가끔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단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 ④ 글쓴이는 ‘노인’의 화단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재주를 끝내 칭찬하지 못한 것을 두고 내내 후회하였다.
- ⑤ 글쓴이는 ‘노인’이 가꾸는 ‘장미’나 ‘복숭아나무’들이 ‘노인’이 공을 들인 것이거나 노인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 4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거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표상하는 자연물이며, ㉡는 현재에 대한 글쓴이의 만족감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화자가 안타까운 감정으로 응시하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가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연물이다.
- ③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와 다른 인물들 간의 표면적 갈등을 점층적으로 심화하는 자연물이다.
- ④ ㉠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의 고요함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자연물이다.
- ⑤ ㉠은 화자로 하여금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자연물이며, ㉡는 글쓴이로 하여금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자연물이다.

## 50.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련된 성현들의 말을 두루 인용함으로써 논지 전개 of 정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결과보다 다방면에 걸친 원인들만을 언급하여 특정 현상의 발생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글쓴이의 입장에 반하는 견해를 언급한 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와 그와 관련된 근거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 ⑤ 소재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다각도로 드러내고 있다.

## 5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평균’ 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밤’ 이라는 시간도 물리쳐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는 세태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 인식의 대상을 ‘겨울나무’ 에서 ‘사람들’ 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이 인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자연물에 가해지는 인위적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석류나무’ 의 형상이 본래의 모습과는 멀어지게 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공숙단’ 을 비판한 노래를 제시함으로써 과도하고 포악하게 살상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불교의 책’ 에 실린 ‘계율’ 을 거론함으로써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만물을 대하는 군자의 선한 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5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인간의 편리를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 자연을 대한다. 이에 반해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생태계의 모든 존재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연을 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가)-(다)에 제시되어 있는데, (가)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경계가 나타난다. (다)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과 만물에 대하는 바른 이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인간을 세상과 사유의 중심에 두되, 만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 ① (가)에서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은 자연의 본성을 거스른 채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에서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는 생태 중심주의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다)에서 ‘다만 그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이, 자연과의 조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포하는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가) 현대 소설의 미학적 성과 중 하나는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한 서술이다.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대부분 인물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고 사건의 미래도 예견할 수 있는 전지적 능력을 지닌 서술자이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전지적 능력이 제한된 작품이 다수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풀어 가는 작품은 독특한 미학적 효과를 낳는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김유정의 「동백꽃」, 채만식의 「치숙」, 조세희의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정의되는데,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대체로 그의 편견이나 잘못된 가치 판단으로 인해 인물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해한다. 반면 후자는 순박하거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오해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적절히 헤아리지 못한다.

[A]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와는 다른 독특한 효과를 발휘한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그의 무지나 성격, 가치관으로 인해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평가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그의 말하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는 작품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인물의 의도와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자는 서술자의 순진하거나 어리숙한 말하기에서 재미나 연민을 느끼며 웃지만, 부적절한 가치관이나 편견에 갇힌 말하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냉소하게 된다.

(나)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푹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벉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울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①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걸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엇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허케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다)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속에 모진 생각들만 처넣고 사는, ㉞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경영·경쟁·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저희들은 무서운 독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 간다고 단정했다. 그 중독 독물이 설혹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 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 사회가 들어 있었다.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이상에 현실을 대어 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넋더리가 났다. 그중의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 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안 되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두 개를 잃었을 것이다.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이 여덟 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 잃은 두 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에 끼쳤을 영향을 나는 생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내가 떠올린 것은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와 들풀, 거기 부는 바람, 호수를 가르며 모터보트, 잔디 위에서의 스키, 이상한 버릇이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아주 단 낮잠들이었다. 별통과 사슴 사육장이 보였다. 낮잠 뒤에 대할 식탁도 떠올랐다. 나는 독서를 하기로 했다. 미래 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뒤의 것은 이미 상당 부분을 읽었다. 월터 스콧이 인용된 곳을 읽다가 나는 웃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 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꽉 차 있다고 개탄했다. ㉞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장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맨체스터나 브래드퍼드의 초기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해 치닫는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궁금중 때문에 나는 졌다. 그 법정에 앉아 있는 한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보기에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섭이 말했다.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겠느냐고 묻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삼 남매가 은강 공장에 나가 일해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의 부인이 써 온 낡은 가계부를 들었다. 나는 하도 화가 나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콩나물값·소금값·새우젓값에서 두통·치통 약값까지 읽어 내려가더니 도시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를 두서없이 주워섬겼다. 물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강 그룹의 부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과 보호,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 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 그래서 이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인간 훼손, 자연 훼손, 거기다 신의 훼손까지 들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이 큰아들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산하 회사 공장 종업원들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활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지섭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그의 말을 들어 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 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나는 앓아서 화를 눌렀다.

-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53. 25001-0270

-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나’와 (다)의 ‘나’는 모두 순박한 성격으로 인해 성인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하는 서술자이다.
  - ② (나)의 ‘나’와 (다)의 ‘나’는 모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사건의 의미를 왜곡하여 평가하는 서술자이다.
  - ③ (나)의 ‘나’와 (다)의 ‘나’는 모두 독자가 서술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다.
  - ④ (나)의 ‘나’와 (다)의 ‘나’는 모두 신빙성 없는 서술자로, 전자는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이고 후자는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이다.
  - ⑤ (나)의 ‘나’가 서술하는 말에 대해 독자는 재미나 연민을 느끼며 웃게 되고, (다)의 ‘나’가 서술하는 말에 대해 독자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냉소하게 된다.

54.

[A]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잘못이 없다는 ‘나’의 확신과는 달리 점순이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나’에게 서운할 거야.
- ② ㉡: 점순이가 이상하다는 ‘나’의 의심과는 달리 점순이의 말 걸기는 ‘나’에 대한 호감의 표시일 거야.
- ③ ㉢: ‘나’의 부모가 점순네를 칭찬한다는 ‘나’의 설명과는 달리 그들의 말은 점순네를 향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야.
- ④ ㉣: ‘이런 부류들’을 잘 안다는 ‘나’의 확신과는 달리 ‘나’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그들의 처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 ⑤ ㉤: ‘허풍쟁이’의 말이라는 ‘나’의 폄하와는 달리 ‘그’의 ‘개탄’은 공장 지대를 돌아보며 알게 된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봐야 해.

55.

다음은 (나)에 나타난 행위들을 정리한 것이다. 행위가 일어난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ㄱ. ‘점순’은 다시 바구니를 집어 들고 논둑으로 달아난다.
- ㄴ. ‘나’의 가족은 마을로 오면서 점순네에게 집터를 빌린다.
- ㄷ. ‘점순’은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와서 혼자만 일하는지 묻는다.
- ㄹ.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과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 ㅁ. ‘나’는 점심을 먹은 후 산으로 올라갈 때 점순네 수탉과 자기네 수탉이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 ① ㄴ → ㄹ → ㄷ → ㄱ → ㅁ
- ② ㄴ → ㄹ → ㅁ → ㄷ → ㄱ
- ③ ㄷ → ㄱ → ㅁ → ㄴ → ㄹ
- ④ ㄷ → ㄴ → ㄹ → ㅁ → ㄱ
- ⑤ ㅁ → ㄷ → ㄱ → ㄴ → ㄹ

5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30년대에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이 시기 농민들 중 약 80%는 자신의 토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인해 타인의 토지까지 빌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이었다. 소작농은 빌린 토지에서 얻은 수확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다. 이때 소작료를 관리하고 소작농의 농사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름이다. 마름은 소작료를 결정하거나 소작을 배분하고 감독하였는데, 이 권한을 남용해 소작농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소작농이 경제적 어려움과 계층적 불평등을 겪으며 느낀 비애와 분노는 소작 제도에 얽힌 농촌의 사회 구조적 차별과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① 점순네 닭과 ‘나’의 닭의 외양상 대조는 마름과 소작인의 계층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 ② ‘나’가 점순네 닭을 후려치려다가 헛매질로 떼어 놓는 것에서 소작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비애가 엿보이는군.
- ③ 동리 어른의 말을 무시하는 점순이의 행동에서 소작농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마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의 가족이 점순이의 가족에게 굶실거리는 이유는 마름과 소작인의 계층적 관계 때문이군.
- ⑤ ‘나’가 점순이의 호의를 받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점순이가 소작인과 마름의 계층적 차이를 ‘나’에게 환기했기 때문이군.

57.

(다)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재판 중에 눈을 감고 안락한 분위기의 풍경을 떠올린다.
- ②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변호인과 지섭의 말을 다시 듣기 시작한다.
- ③ ‘나’의 아버지는 ‘나’가 미래 공학, 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 ④ 지섭은 그때까지 자신이 한 증언은 거짓이 없었다며 증언대로 올라가 항변한다.
- ⑤ 변호인은 지섭이 한 말 중 특정한 어휘나 표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5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의 중요 소재는 재판이다. 재판은 소설의 오랜 소재로, 이를 다룬 소설은 대체로 피해자, 가해자, 증인 등의 생각을 묻는 심문을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며 판결에 이르는 구성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 참여자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사건과 연관된 계층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도 함께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도 독자는 지섭의 증언과 방청객인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나 서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본가 계층인 ‘우리’와 노동자 계층인 ‘저희들’을 향한 상반된 시각과 평가도 파악할 수 있다.

- ①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 지섭은 ‘강요된 행위’라고 변호하나 ‘나’는 이러한 변호에 대해 화가 난다.
- ② ‘저희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해, ‘나’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지섭은 ‘나’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우리’가 누리는 생존에 대해, ‘나’는 남다른 노력과 자본 등을 통해 성취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섭은 ‘우리’가 저임금, 높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인간, 자연 등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서로에 대해, ‘나’는 지섭이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눈’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지섭은 ‘나’가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라고 분노한다.
- ⑤ 서로의 계층에 대해, ‘나’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이상 사회를 지향하고 행복을 거부한다며 언더리를 내고 지섭은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가)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 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래서 의부라고 전 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룻들 편할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㉔충각 낫세론 동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훔칠 듯 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 “봉평? 그래 그 아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 “그 그렇겠지.”

[A]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댘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건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펑이나 흘렀었다. 옷째 줄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잡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원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별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㉕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듯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㉖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판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등실등실 가벼웠다.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

어. 나귀에겐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B] 걸음도 해잡고 방울 소리가 밤 별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나) S# 77. 개울(밤)

난감한 표정으로 개울을 바라보고 선 세 사람.

허 생원: 지난 장마 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먼그래.

조 선달: (바지의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며) 할 수 없지, 뭐.

조 선달이 먼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넌다.

조 선달: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며) 어여 건너와. / 허 생원: 그러.

허 생원이 동이를 따라 강을 건넌다. 허 생원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한다.

허 생원: 모친은 원래 제천분이신가?

동이: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지는 않으셨대유.

허 생원: (울렁거린다.)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동이: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 주는데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

허 생원: (놀라며) 봉평?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뭐가?

동이: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 서방이라고 했던가?

허 생원: (당황하며) 초, 초 서방?

순간, 허 생원이 발을 헛디더 풍덩 앞으로 고꾸라진다. 놀라는 동이. 허 생원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동이가 허생원을 잡아 일으켜 준다.

동이: 안 되겠구먼유. 자, 업혀유. / 허 생원: 아, 괜찮아.

동이: 아, 괜찮아유. 어서유.

동이, 쉽게 허 생원을 들쳐 업는다.

동이: 생각보다 해잡네유.

허 생원, 동이의 등이 편하다. 슬쩍 못 이기는 척 기댄다.

허 생원: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㉗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일세.

동이: (그냥 웃는다.) / 허 생원: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동이: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했는데……. / 허 생원: 그래, 지금 모친은 어디 계신가?

동이: 아직 제천에 있지유.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유. 이를 물고 별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유.

내내 조심조심 물을 건너는 동이와 그 등에 업힌 허 생원.

S# 78. 모닥불 근처(밤)

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 세 사람.

조 선달: (웃으며)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랬디야?

허 생원: 실은 아까 나귀 생각을 했었어. / 조 선달: (백근이를 쳐다보며) 나귀?

허 생원: 그러. 저 못난 꼴을 해 가지고 새끼를 얻었잖아.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조 선달: (웃으며) 맞아. ㉠생원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지.

허 생원: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귀를 종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 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동이: (웃으며) 그래유?

조 선달: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 / 동이: (웃으며) 아, 예.

허 생원: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마를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동이: 생원도 제천으로유?

허 생원: 어, 그래. 모처럼 한번 가 보고 싶구만. 같이 동행하려나, 동이?

동이: 아, 그러지유.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뵈구유.

동이, 먼저 돌아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

조 선달: 동이도 자네처럼 왼손잡이인가 보네. / 동이: 예,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유.

조 선달: ㉡(놀란 표정으로) 그러? / 허 생원: (놀란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걷는다.

동이: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유. 보고 싶네유.

허 생원: 어,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조 선달: (웃으며) 왜? 팔렸나? / 허 생원: (웃으며) 허허, 글썸.

조 선달: 원, 사람도. / 허 생원: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땀기나 좀 사 볼까?

조 선달: 자네가 땅을 사? 허허,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방울 소리가 밤 별관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걸어간다.

- 이효석 원작, 동희선·홍윤정 각색, 「메밀꽃 필 무렵」

59. 25001-027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 생원 일행은 대화 장으로 가기 위해 밤길을 걸었다.
- ② 허 생원은 읍내를 방문하여 나귀 새끼를 보기도 하였다.
- ③ 동이는 의부로 인해 자신의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 ④ 조 선달은 허 생원이 개울에 빠진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였다.
- ⑤ 조 선달은 허 생원이 궁금해하는 것을 동이에게 묻기도 하였다.

6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B]는 배경 묘사를 통해 공간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인물 간의 갈등이 형성되는 과정을, [B]는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인물이 지닌 속성을 통해 인간 세계의 유한함을, [B]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자연의 영원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의 추이를, [B]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B]는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6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스스로 범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상대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다.

62.

제천과 봉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 생원은 과거에 봉평과 제천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다.
- ② 동이의 어머니는 고향인 봉평을 떠나 제천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
- ③ 허 생원은 동이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사실을 듣고 실망하였다.
- ④ 동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제천에서 봉평으로 모시고 오려고 계획하였다.
- ⑤ 허 생원은 동이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제천으로 갈 생각을 하였다.

63.

(나)의 ‘허 생원’ 이 ㉠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백근이가 얻은 새끼의 어미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피마였기 때문에
- ② 못한 꼴을 한 백근이가 자신과 닮지 않은 새끼를 얻은 것이 신통했기 때문에
- ③ 귀여운 나귀 새끼를 보러 간다는 명분으로 봉평에 들릴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 ④ 자신과 같이 못한 백근이가 새끼를 얻게 된 것에 대해 대리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 ⑤ 나귀 새끼가 성장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예전보다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6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허 생원과 동이가 주고받는 대화와 심리 묘사,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 두 인물 간의 혈연관계가 교묘히 암시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원작 소설의 이야기 구조는 전지적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 제시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지만, 이를 각색한 시나리오에서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된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을 시나리오의 형식에 맞게 각색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하여 변형함으로써 원작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물의 생각과 정서가 시나리오 고유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가)에서 동이와 어머니를 학대했던 의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허 생원과 동이 사이의 혈연관계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되겠군.
- ② (가)에서 아버지의 성을 묻는 허 생원의 질문에 동이가 모른다고 대답한 데 반해, (나)에서는 동이가 ‘초 서방’ 이라고 답하고 허 생원이 당황하는 장면을 추가하여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군.
- ③ (가)에서 동이의 등에 업힌 허 생원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부분이, (나)에서는 허 생원이 동이의 등에 못 이기는 척 기대는 행동으로 변형되어 허 생원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군.
- ④ (가)에서 허 생원 일행이 밤 별판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나)에서 허 생원이 조 선달처럼 땅땀이나 사 볼 까라는 말을 건네는 부분을 추가한 것은 동이가 자신의 혈육일 것이라는 허 생원의 기대감을 한층 강화하여 나타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가)에서 허 생원이 나귀 새끼를 보러 읍내를 돌기도 한다고 말한 부분과 달리 (나)에서 허생원이 이제 나귀 새끼를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자신과 같이 장돌뱅이로 살아가는 혈육의 등장으로 인해 장돌뱅이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허 생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겠군.